

# 전주매일

금연상담전화 | 1833-9030  
전주매일 1층 사무실 063-288-2400 ~ 2410

비수술적 척추관절 통증치료 전문  
**세인 신경외과 의원**  
원장 박경문 ☎ (063)220-6600  
전주시 완산구 효자 천변 2길 6번지

2017년 2월 21일 화요일 (음 1월 25일) 제1751호

www.jjmaeil.com

대표전화 (063)288-9700

## 도, 산학연계 맞춤형 인력 양성

# 청년 취업 해결에 수훈갑

### 대학 산·학·관 커플링사업 운영 사업단 선정

도내 청년 취업의 청량제 역할을 하고 있는 '2017 대학 산·학·관 커플링사업' 운영 사업단이 선정됐다.

전북도에 따르면 현장 중심의 산학연계 맞춤형 인력양성으로 중소기업의 경쟁력 강화 및 도내 청년들의 취업을 지원하기 위한 '2017년 대학 산·학·관 커플링사업' 운영 사업단 24개를 선정했다고 밝혔다.

이번 선정된 24개 사업단은 인력양성 분야에 따라 이공 분야 14개 사업단, 인문사회·예체능 분야 9개 사업단, 패션주얼리분야 1개 사업단을 선정해 사업비 39.8억원을 지원할 계획이다.

평가는 참여 대학 사업단의 역량과 비전 제시, 현장 중심의 교과운영 및 사업계획의 타당성 등을 평가로 구분해 정량과 정성의 균형적 평가를 실시했다.

특히, 일찍부터 미래를 담보하고 진로를 결정하는 학생들의 참여 의지를 독려하고 신뢰보호를 위해, 참여기업 적극성과 산학협력 프로그램 우수성 등에 평가의 중점을 뒀다.

2년 연속 성과평가 최하위 사업단은 선정을 배제하는 등 성과평가 결과 반영 확대를 통해 사업의 환류기능을 강화해 사업의 경쟁력을 강화했으며, 신규사업단에 대한 진입제한이 되지

않도록 별도의 기본점수를 부여했다.

대학 산학관 커플링사업은 도와 대학, 그리고 취업을 지원하는 기업이 연계돼 하나의 사업단을 이루고, 기업 현장에서 필요한 맞춤형 인력 양성에 초점을 맞춰, 기업들이 희망하는 교과목을 조사해 커리큘럼에 반영하고 교육 수료 후에 교육생이 실무 현장에 바로 투입 될 수 있도록 현장 중심의 교육을 실시한다.

올해 커플링사업은 사업 규모 확대 등 양적인 팽창보다는 사업의 내실을 기하고 실질적인 성과 도출이 가능한 질적 성장을 꾀하기 위해, 경쟁력이 낮은 사업단은 과감히 퇴출 할 수 있도록 평가를 강화했다.

또한, 보조금 집행 등에 대한 공통 지침을 마련해 사업단별 사업수행능력 강화, 취업을 향상, 성과지표에 대한 달성도 측정 강화 등 내실을 다질 계획이다.

대학 산학관 커플링사업은 전북도가 지난 2007년도에 전국 자치단체에서 처음으로 기업, 대학과 협력으로 기업현장에서 요구하는 맞춤형 전문 인력 양성을 통해 도내 기업에 지원함으로써 도내 우수인력의 타 지역 유출 방지, 기업경쟁력 강화, 도내 대학생 취업 등 성공적인 산학협력 모델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매년 80%이상의 높은 취업률을 달성했으며, 지난해 2월 수료한 참여 학생의 취업률은 83.5%로, 전국 평균 취업률 67.5%보다 16%가 높은 것으로 나타나 사업의 효과를 입증하고 있다.

또한, 매년 실시하고 있는 만족도 조사결과에서도 참여 학생의 재직기업 만족도 74%, 커플링사업을 통한 교육 과정의 현장 활용 만족도 77%, 채용기업의 취업자 만족도 84% 등으로 참여 학생 및 기업 양쪽의 만족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올해 커플링사업은 사업 규모 확대 등 양적인 팽창보다는 사업의 내실을 기하고 실질적인 성과 도출이 가능한 질적 성장을 꾀하기 위해, 경쟁력이 낮은 사업단은 과감히 퇴출 할 수 있도록 평가를 강화했다.

또한, 보조금 집행 등에 대한 공통 지침을 마련해 사업단별 사업수행능력 강화, 취업을 향상, 성과지표에 대한 달성도 측정 강화 등 내실을 다질 계획이다.

유희숙 경제산업국장은 "앞으로도 커플링사업을 통해 대학과 전북도가 기업의 성장을 선도하고, 기업의 성장을 통해 청년들에게 일자리를 제공하는 선순환 구조 조성을, 기업과 대학의 동반성장과 지역 산업발전에 기여하는 내발적 발전 전략의 효과를 거둘 수 있는 여건 조성에 아낌없는 지원을 하겠다"고 말했다. /인재용 기자



전주-원주 시내버스 노선개편 시행 첫 날  
전주시는 전주-원주 시내버스 노선개편 시행 첫날인 20일 출·퇴근 시간대에 노선개편 내용을 숙지한 550명의 직원을 주요정류장 200개소에 배치해 시내버스를 이용하는 시민들을 대상으로 달라진 노선과 주요환승지 등을 안내했다. 이날 아침 시내버스를 이용해 출근길에 오른 김승수 전주시장이 정류장과 버스안에서 시민들에게 노선개편 내용을 홍보하고 다양한 의견을 청취했다. <관련기사 4면>

## 세계잼버리 새만금 유치 정치권·정부지원 약속

### 진홍 정무부지사, 국회서 건의 정세균 의장 "대한민국의 현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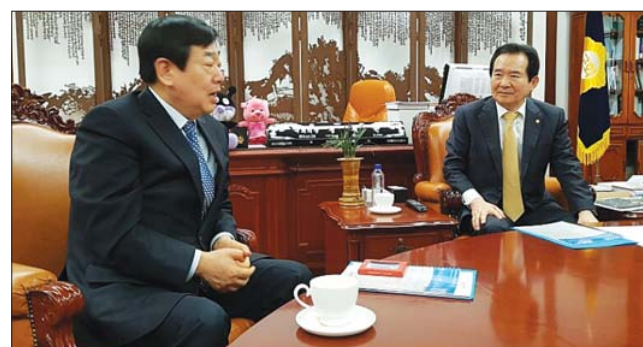
2023 세계잼버리 새만금 유치활동에 정부와 국회가 적극 나설 것으로 기대가 모아지고 있다.

진 홍 정무부지사는 20일 국회를 방문해 정세균 국회의장과 세계잼버리 유치위원장인 이주영 국회의원을 잇따라 면담하고 잼버리 유치를 적극 지원해 것을 건의했다.

진 부지사는 "국회의원들의 해외 의정활동시 해외 국회의원 및 스카우트 관계자 등의 면담을 통해 오는 8월 개최지 결정이 예정된 세계총회에서 대한민국 새만금에서 잼버리가 열릴 수 있도록 적극적인 지지를 요청해달라"고 부탁했다.

정세균 국회의장은 이 자리에서 "2023 세계잼버리 유치는 전북도민의 일이 아니라 대한민국의 현안"이라며 "국회 차원에서 도울 수 있는 일들을 찾아 적극 돕겠다"고 밝혔다.

이주영 유치위원장은 "잼버리 유치 위원장으로서 폴란드를 반드시 이길 수 있도록 노력하고, 국회와 정부의 가교 역할을 충실히 해 범국가적으로 유치활동을 펼치는데 앞장서겠다"는



진 홍 정무부지사는 20일 국회를 방문해 정세균 국회의장과 2023세계잼버리 유치위원장인 이주영 국회의원을 잇따라 면담하고 잼버리 유치를 적극 지원해 것을 건의했다.

의지를 분명히 나타냈다.

이에 앞서 세계잼버리 주무부처인 강은희 여성가족부 장관은 지난 14일 열린 국무회의에서 2023 세계잼버리 새만금 유치를 위해 세계잼버리 유치 추진상황을 설명하고 외교부, 문화체육관광부, 국토교통부를 비롯한 전 부처의 관심과 적극적인 협조를 공식적으로 강력 요청했다.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은 이와 관련 "각 부처가 적극적인 관심과 지원을 통해 세계잼버리 유치활동이 잘 이뤄질 수 있도록 협조하라"고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

여가부와 전북도는 이번 국무회의 통해 해외조직망을 가지고 있는 정부 기관들의 종합적인 지원체계가 확립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진홍 정무부지사는 "개최지 결정이 176일 남은 시점에서 우리나라도 정부와 국회에서 적극 나서는 만큼, 남은기간 관계기관과 협력해 유치성공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인재용 기자

## '잠적' 안봉근, 제 발로 특검 출석... 질문엔 '침묵'

안봉근(51·사진) 전 국정홍보비서관이 20일 박영수(65·사법연수원 10기) 특별검사팀에 출석했다.

이날 오후 1시55분께 서울서 강남구 대치동 특검사무실에 모습을 드러낸 안 전 비서관은 취재진 질문에 아무런 답변을 하지 않았다.

안 전 비서관은 청와대에 비선 진로진을 출입시켰냐는 물음에 아무런 답변을 하지 않았고, '담당 업무이지 않았느냐'는 기자들의 질문이 이어지자 "예"라고 짧게 대답한 뒤 조사실로 향했다.

특검팀은 박근혜 대통령 비선 진



료 의혹 수사를 위해 안 전 비서관을 참고인 신분으로 소환했다.

안 전 비서관은 이재만(51·정호성 48·구속기소) 전 비서관과 함께 '문고리 3인방'으로 불린다. 이들은 박근혜 대통령이 의원이던 시절부터 오랜 기간 가까이에서 보좌해 왔고, 박근혜 정부에서 막대한 권한을 행사한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해 11월 검

찰 특별수사본부에도 출석해 조사를 받았다.

안 전 비서관은 최순실(61·구속기소)씨가 박 대통령 순방일정을 미리 입수하고 의상을 제작했다는 의혹이 제기된 시기 제2부속 비서관으로 근무했다. 최씨를 수행한 것으로 알려진 이영선·윤전주 행정관도 당시 제2부속실 소속이었다.

안 전 비서관은 자신의 자동차나 이 전 행정관 자동차를 이용해 검문검색 없이 최씨의 청와대 출입을 도왔다는 의혹도 받고 있다. /뉴스이

**2017년도 전국 스키&스노보드 대회**

더불어 만드는 행복한 세상

시민과 함께하는 열린의회

군산시의회!

군산시의회